

## 부활과 휴거가 없다면 인생은 비극이다

성경말씀: 욥14:1-22

욥의 세 친구는 차례로 욥을 공격함, 소발 역시 동일하게 정죄, “죄가 많다. 하나님을 모른다. 회개해라.” 들어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욥의 상한 심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욥의 대답(12장): 나도 하나님을 안다. 심지어 짐승(날짐승, 새, 벌레)들도 안다. 땅도 안다.

하나님이 인간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 쥐고 계신다. 그러나 나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다. 사람에게 토로해야 소용이 없음을 알고 13,14장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함  
인간은 어떤 존재, 인간의 운명, 욥이 바라는 변화, <인간의 운명과 변화의 필요>

### 욥의 결론(13:1-16)

지금까지 너희 말을 다 들었다(1). 그 결과 너희와 이야기하는 것은 불필요함을 느꼈다(2).

그래서 이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아뢰고 변론하려 한다(3).

그 하나님의 타이틀은 전능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 내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하실 분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12:4 참조), 쓸모없는 의사들, 전능자와 대조되는 말

의사: 병을 고쳐 주는 사람, 인간에게 필요하다. 쓸모없는 의사가 되면 곤란하다. 욥의 세 친구 쓸모없는 의사가 되는 길(7-8), 공식이 있다. 맞는 말 같은 데 위로를 전혀 못 주는 쓸모없는 공식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 결과 죄인들은 심판을 받는다. 네가 망한 것을 보니 너는 죄인이다.

그런 심판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괜히 하나님을 들먹이며 하나님 편을 들면서 욥을 비하함  
욥기의 교훈: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요9장의 나면서부터 소경(1-3), 누구의 죄 때문이나, 부모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무조건 하나님 운운하면서 말하지 말라.

욥의 결론: 조용히 해라(5). 너희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 조롱이다(9). 너희는 재, 진흙과 같다(12).

욥의 각오: 내 무죄를 입증하려고 심지어 나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다(13, 14). 몸이 만신창이다.

나는 내 목숨을 내놓고 내 무죄를 입증하려 한다. 즉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려고 한다(15).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았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16). 이 문제, 죄 문제, 사망 문제, 너희 위선자들은 그분 앞에 못 온다(16).

종교인을 가리키는 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쓸모없는 의사(4), 위선자(16), 벗어나야 한다.

### 죄 문제(13:17-28)

주여 두 가지만 내게 하지 마소서(20).

1. 주의 손을 멀리 두소서(21), 2. 나를 무섭게 하지 마소서(21). 3. 그리고 먼저 말씀하소서(22).

“즉 재판정에 들어가서 같이 의논해 봅시다.”

가장 먼저 그는 자기 죄에 대해 알려달라고 한다(23). 주님이 그를 원수처럼 여기신다(24), 낙엽처럼

부수신다(25). 그래서 그는 썩은 물건처럼, 목 먹은 옷처럼 된다(28). 무슨 죄 때문입니까  
이제부터 욥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들고 나온다. 욥기가 가르쳐 주는 진리  
첫째,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죄 문제로 대면해야 한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 말씀을 거역하는 것, 양심의 법을 거역하는 것, 불법이다.

특히 젊을 때(26), 기력이 넘칠 때에는 불법이 많다. 심지어 다윗도 이를 고백한다(시25:7).

백아더 목사님의 예, 78세 노인, 아직도 포르노 영상, 잡지를 본다. 죄가 이렇게 끈질기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죄의 삶은 사망이다.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창조자를 만날 대비를 해야 한다.

### 짧은 인생과 고통 문제(14:1-6)

인생은 짧고 고생바가지(1, 2), 욥기의 위대한 구절, 고생은 죄의 결과이다(창3:16-19).

이처럼 유한하고 고생만 하는 자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시느냐(3)? 불평

죄를 물으시면 죄 없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4)? 사람은 죄 속에서 수태되어 부정하다.

더욱이 인간의 삶은 짧다(5). 하나님의 손에 정해져 있다. 쏜살 같이 빨리 지나간다(시90:10).

### 죽음 문제(14:7-12)

사람은 결국 죽는다(10, 12). 내 아버지, 파주 무덤에, 지금은 다 몸이 삭아서 뼈만 남고 없어졌다.

어쩌면 나무보다도 못하다. 나무는 베여도 뿌리만 있으면 다시 가지를 내고 꽃을 낸다(7).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면만 생각한다. 그 결과 죽으면 끝이라고 말한다.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다.

욥기가 여기서 끝나면 그들의 말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잠시 후에 위대한 말씀 설명 인간의 삶 잠시 정리: 인간의 죄 덩어리, 누가 보아도 깨끗한 사람은 없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 영원하지

못하다. 동시에 고생 덩어리다. 괴테의 말: 인생에서 기쁜 날은 한 달도 안 된다. 좋다가도 바로 슬픔이 온다. 좋다가도 혹시 이것이 끝나면 어찌지 하면서 슬퍼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죽음과 의 싸움에서는 면제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전8:8).

악인이든 선인이든 결국 죽는다.

여기서 끝나면 나무만도 못하다(1000년). 바다 거북이보다도 못하다(500년).

### 욥의 소원: 변화가 오면 좋겠다(14:13-17)

나를 무덤에 감추시고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숨기시고 정해진 때를 지정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소서(13).

위대한 말씀, 아직 계시가 분명하지 않은 때, 성령이 없던 때,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 준다.

욥의 죽음은 무엇인가?

주께서 무덤에 내 몸을 감추고 숨겨 주시는 것,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그날은 정해진 때이다. 신약성경의 용어로는 부활하는 때,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공중 강림하는 때 욥의 질문 및 소원(14), “죽으면 다시 사느냐?”

나중에 확실히 요약 정리: 다시 산다(욥19:25-27).

나를 위해 정해진 때를 기다리되 변화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다(14).

지금 식으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살전4:16-17) 이러면 변화가 생긴다(14).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된다(고전15:51-53).

썩을 것, 죽을 것이 변화되어 썩지 아니함,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15). 그러면 우리는 대답한다.

이때에 주님은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신다(15).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준 우리의 몸이다.

그 결과 우리 즉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아멘 할렐루야!

### 현실은 고통이다(14:18-22)

욥은 자기가 죄인임을 안다. 인생이 짧다. 고통의 연속이다. 결국 죽는다. 그럼에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다 앞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소망이 없다(19).

여전히 그의 육체는 아픔을 느끼면 산다(22).

그래서 욥기14:1-2의 고백이 진실이다.

###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욥보다 나은가? 삶이 승승장구, 고통이 없나? 인생이 긴가? 죽지 않는가? 면제되지 않았다.

고전10:13, 여기서 이기게 해 주신다.

특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딤후2:12).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 여기에 왜 오는가?

말씀을 지키려고, 아이들과 함께 바르게 서려고, 핍박이 있더라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이런데 만일 부활과 휴거의 변화가 없다면 인생은 비참한 것이다. 비극이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비참한 자들(고전15:19). 우리 어머니

고전15:57-58